

세계도시

2006. 3. 20. 제139호

목 차

도시경영·경제

1.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로 구성된 지역순찰대 창설 (북경)
2. 주택 공급 확대 등 중점사업에 대한 시장 직권강화 추진 (런던)
3. 지역의회 시민자문단 모집 (파리)
4. 예산적자폭 저감 위해 공무원 4000여명 감축키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5. 젊은 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스쿨 개설 (동경都 스미다區)
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외국투자촉진데스크' 운영 (상해)

디지털도시

7.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소와 멀티정보서비스실 개설 (파리)
8. 각종 도시발전 관련자료를 관리하는 '도시기억개발공정' 착수 (상해)

복지·문화

9. 노후생활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베를린)
10. 초등학생 하교시 안전방송 시행 (동경都 마치다市)
11. 손자, 손녀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할머니 교실' 운영 (시드니)
12. 저출산대책으로 출산비용 지원 (동경都 미나토區)

도시환경

13.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발전보다 이산화탄소 저감에 도움 (영국)
14. 대기오염 갈수록 악화, 차량 배기가스가 주범 (시드니)
15. 온실가스 삭감을 목표로 「삼립환경제」 도입 (일본 후쿠시마縣)
16. '쓰레기 배출구분 색깔 캘린더' 제작 배포 (동경都 타이토區)

도시교통

17. 주차공간 부족 해결 위해 자동차 클럽(Car Club) 운영 제안 (런던)

도시계획·건설·주택

18. 구청의 주택건설 촉진 위해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장려금 지급 검토 (영국)
19. 슈퍼도심재개발공사 설립 추진 (영국 험市)

방재·안전

20. 안전 월드컵을 위한 엄격한 경기장 관리규칙 시행 (독일)
21. 대규모 사고 발생시 방재기관간 연대 방안을 기술한 매뉴얼 제작 (동경)
22. 건축현장 안전정보 공시제도 시행 (북경)

1.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로 구성된 지역순찰대 창설 (북경)

북경市 최초로 市가 재정지원하는 지역순찰대가 3월 1일 창설됐다. 지역순찰대 대원 600명 대부분이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다. 이들은 24시간 동성區의 126개 지역을 순찰하게 된다. 지역순찰대는 매달 600위안(약 73,000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역순찰대 활동과 관계없이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26개 전지역에 걸쳐 지역당 4명 이상의 순찰대원이 배치되어 24시간 교대 순찰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야간치안 부재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역순찰대는 월정 수당 외에 처리건수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자전거 절도범 검거시 100위안(약 12,000원)이 추가 지급되고 가택 침입이나 자동차 절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1,000위안(약 1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北京晚報, 2006. 3. 2)

>>> 전문가 검토의견

대도시 고용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관심사다. 특히 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시책의 중요한 분야이다. 서울시 역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 예를 들면 고령자를 위해 지하철 지킴이를, 청년실업자를 위해 행정서포터를 활용하고 있다. 북경의 지역순찰대를 서울에 도입하고자 할 경우 전제조건이 있다. 먼저 국내에서는 도시 치안업무가 경찰청 관할이고 지방경찰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지역순찰대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서울시에서 공공 일자리는 단순노무에 한정되고 고정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 효율성이 낮은 시혜성 일자리로 비춰지기도 한다. 북경市の 인센티브 제공은 이러한 비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 판단된다.

/윤형호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younh@sdi.re.kr)

2. 주택 공급 확대 등 중점사업에 대한 시장 직권강화 추진 (런던)

최근 한 일간지에 실린, 유대인 기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한 달간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런던시장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자문위원회인 런던 거버넌스위원회(Commission on London Governance)는 2월 15일, 폐기물 수거 및 관리업무 부서와 직업교육 업무를 담당해 오던 런던市 평생교육지원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 5개소를 각각 시장 직속 단일부서로 통합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실업 문제와 폐기물처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런던市 배출 쓰레기의 1/3이 매립되고 있어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지 않으면 EU 환경정책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이 경우 향후 15년 동안 지출해야 할 부과금은 250억 파운드(약 4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켄 리빙스턴

시장은 평생교육센터 통합, 시장 직속화를 통한 실업률 개선과 함께 계속 상승하는 런던의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자금 투자업무도 시장 직속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www.thisislocalondon.co.uk/news/mayor/mayornews/display.var.688526.0.mayor_wants_the_power_to_fix_londons_problems.php)

3. 지역의회 시민자문단 모집 (파리)

파리市는 시민이 지역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자문단을 모집한다. 파리지역의회는 총 121개로, 모든 주민에게 열린 정보와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 자문위원 약 4,000명은 매년 400여 차례의 회의를 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다수 자문위원이 관심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약 10,000개 정도 새롭게 입안되는 도시계획 혹은 교통계획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2002년 2월 27일에 공고된 '근접 민주주의'법 시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민자문단은 지역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www.paris.fr)

4. 예산적자폭 저감 위해 공무원 4,000여명 감축키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호주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며 약 30만 명의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州는 다음 회계연도에 무려 5억 3300만 호주달러(약 3814억원)의 예산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몸집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예산적자폭을 줄일 목적에서 시행되는 이번 공무원 감원은 대민(對民)부서가 아닌 IT나 사무직 분야에 근무하는 총 4,0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3개 도로교통국 출장소 또한 곧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무원 감축 결정에 따라 州정부의 각 부처는 수 개월분 급여를 퇴직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강제퇴직 희망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州정부의 예산적자 악화 전망을 州정부의 관리능력부족 탓으로 돌린 피터 데브남 뉴사우스웨일즈州 야당 당수는 예산적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공무원 감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국민연합당이 집권할 경우 공무원 퇴직 자원자 수를 2만 9000여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감원이 예상되는 부서가 노인, 장애인, 가정보호(Home Care) 등의 부처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감원정책을 펼치는 州정부 집권당에 대해 차기 2007년 3월 州선거에서 여야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를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 2006. 3. 3)

5. 젊은 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스쿨 개설 (동경都 스미다區)

동경都 스미다區는 사설학원 형태의 비즈니스 스쿨인 '프런티어 스미다 학당'을 개설해 중소기업 계승자와 젊은 기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이 학당에서는, 장래 경영자로 활약이 기대되는 계승자나 젊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현실을 직시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우리가 내일을 열어간다"고 하는 기개를 심어 주며, 수강생간 토론을 통해 지식을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학당은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며, 현장 시찰과 합숙을 통해 사업 계승자가 안고 있는 고충을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찾으며, 장래 경영에 임하는 결연한 의지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1개월 과정으로 월 1회(토요일), 4시간 운영하는 이 학당의 모집 정원은 10명 정도이며, 수강료는 10만엔(약 83만원)이다.

(www.city.sumida.lg.jp/kakuka/syoukouta/sangyoukeizai/info/sumidajyukuboshu/index.html)

6.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외국투자촉진데스크' 운영 (상해)

상해市가 설립한 '외국투자촉진데스크' (www.investment.gov.cn)가 3개월간의 시범운영에서 7만 회 이상의 클릭 수를 기록했으며, 이 중 해외지역의 클릭 수가 70%에 이르렀다. 상해市 대외경제무역 위원회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기존의 허가방식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국(商務局)은 최근 원가절감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투자유치를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상해市는 외국투자촉진사이트를 통해 투자촉진 수준을 향상시켰고, 관련 정부부문의 기능을 변화시켰으며, 정부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월 16일자로 정식운영되었으며 이 사이트는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도 지원한다.

(www.shghj.gov.cn:8080/gh05/front/contentWord.php?contentId=7774)

한줄 뉴스

- 상해市, 2010년 엑스포 유입인구 해소 위해 상해-항주간 자기부상열차 도입 결정

<북경>

- 중국 137개 도시 중 도시관리 효율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수질 현황 공표
- 2005년 북경시민 1인당 연평균 임금소득 18% 증가, 교통·통신부문 지출이 가장 높게 증가
- 5년 후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기업영업수입이 1조위안(약 122조원)에 달해 지역총생산의 20%에 이를 전망

디지털도시

7.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소와 멀티정보서비스실 개설 (파리)

파리市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법률과 행정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區에 새로운 법률상담소와 멀티정보서비스실을 열었다. 이번 상담소는 18, 19區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설되는 것이며, 시민에게 무료로 정보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조정과 중재를 돕는다.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범죄 희생자, 가족법이나 폭력에 희생된 여성, 외국인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며, 사회법(주거법, 사회법, 소비, 채무관계와 노동법 등), 차별문제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법률 조정관, 市의 중재 대표자, 국가 중재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조정기관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이 법률상담소와 연결된 멀티정보서비스실은 공공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곳 상담원들은 상담 후 시민과 공공기관의 면담 약속을 직접 잡아주거나 수도, 가스, 전기 관할부서 등 공공기관에 보내는 편지와 서류 작성 등을 돕는다.

(www.cdad-paris.justice.fr)

8. 각종 도시발전 관련자료를 관리하는 '도시기억개발공정' 착수 (상해)

상해市는 산재되어 있는 각종 도시발전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가공, 정리하는 일명 '도시기억개발공정(城市記憶開發工程)'에 나섰다. 문서관리국은 각급 문서관리부처의 협조를 얻어 근대 상해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기록물을 수집함과 동시에 국내외의 광범위한 수집활동을 통해 상해 도시발전에 관한 역사문헌, 그림, 사진, 오디오자료 등 각종 자료와 상해市 백년기업(百年企業), 명문학교, 명인(名人) 정보를 발굴해 문화계와 서비스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이 공정을 통해 각 市, 區, 縣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www.shghj.gov.cn:8080/gh05/front/contentWord.php?contentId=7776)

복지·문화

9. 노후생활을 위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베를린)

베를린市 종합정보 홈페이지인 Berlin.de는 2006년 3월 1일부터 노후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www.berlin.de/wohnen-im-alter)를 운영한다. 베를린市(2005년 9월 현재 인구 340만명)의 현재 노인인구수는 56만명인데, 2020년에는 66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거형태와 관련 서비스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 市는, 이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내용을 광고하고 이용자는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포털 사이트는 주거형태, 법률자문 및 상담소 등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와 함께 주거 및 양로시설의 주소가 저장된 데이터뱅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데이터뱅크는 향후 단계적인 검색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격, 배치도, 조망 등 더 상세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고, 이 광고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3/nachricht2176.html)

>>> 전문가 검토의견

노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는 정보화시대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노인복지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어린이, 여성가족을 위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노인과 수발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가 별도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과와 정보화기획단 등이 주관해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뿐 아니라 가족, 건강, 재정, 여가 등 노인과 수발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욕구에 부응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10. 초등학생 하교시 안전방송 시행 (동경都 마치다市)

일본 동경都 마치다市는 초등학생 하교시 아이의 안전 확보를 호소하는 방송을 3월 하순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市 방재행정 무선을 사용해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시험방송을 실시한 결과, 수상한 사람에 대한 신고가 대폭 줄어 시민들이 지속적인 실시를 요망했다. 방송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각인 오후 1시 30분과 2시 30분에 2회 시행되며, “지역주민 여러분, 아이의 안전을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실시된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학기 시작과 마지막 주간을 「방범강화주간」으로 정했다. 市 안전대책과에 의하면, 수상한 사람의 신고가 시험방송 전에는 21건 있었지만 12월에는 3건, 금년 1월에는 1건으로 감소했으며, 반사회·자치회의 방법대 97개 가운데 54개 방법대가 하교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어 시민의 방범의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www.yomiuri.co.jp/e-japan/tokyotama/news002.htm)

>>> 전문가 검토의견

최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괴, 성폭행 등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처방안으로서 고려해볼 만한 사업이다. 안전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나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보건과 등의 관련기관이 연계해 서울시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반사회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지역아동보호를 위한 홍보를 하거나 자발적인 방법대 구성을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11. 손자, 손녀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할머니 교실’ 운영 (시드니)

최근 ‘할머니직 학사학위’라는 신조어가 호주에 등장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호주 할머니들이 늘자 할머니 역할에 대한 특별 교육 세미나를 이수하는 할머니 부대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에 응하는 할머니를 가리켜 할머니직 학과를 이수한 학사라고 비유한다. 이 같은 코스를 개설한 곳은 노스 시드니의 메터(Mater) 병원이고 다른 공립병원에서도 이 같은 세미나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 세미나에서 60·70대 할머니들은 유아인 손자, 손녀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얻게 된다. 시대환경에 맞는 양육 교육을 이수하는 셈이다.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 부대가 느는 것은 어머니들이 비싼 보육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들을 돕기 위해 할머니들이 발벗고 나서기 때문이다. 할머니 덕으로 어머니들은 파트타임 일도 하고 보육원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호주 취업 가정주부 1/3이 유아자녀 양육을 할머니에게 맡긴다는 통계수치가 있다. 할머니에 의한 손자 양육은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할머니와 손자간에 통하는 혈육의 정이 어린이의 정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호주동아일보, 2006. 2. 3)

12. 저출산대책으로 출산비용 지원 (동경都 미나토區)

동경都 미나토區는 2006년 4월부터 출산비용을 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02년 일본 어린이 미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비용은 45만엔(약 373만원) 정도 된다. 건강보험조합이 30만엔(약 250만원)의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지만 실제 비용이 지원금을 크게 웃도는 병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출산비용에서 건강보험조합이 지급하는 「출산육아일시금」을 공제한 액수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비용 지원금 상한을 50만엔(약 414만원)으로 해 2006년 4월 이후 출산한 부모부터 지원한다. 區 관계자는 “출산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대책 마련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나토區가 발표한 2006년도 일반회계예산 총액 980억엔(약 8125억원) 중 1억 2800만엔(약 106억원)을 출산지원비용으로 조성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7.1% 증가한 것이다.

(job.yomiuri.co.jp/news/jo_ne_06021401.cfm)

도 시 환 경

13.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발전보다 이산화탄소 저감에 도움 (영국)

영국의 녹색당(Green Party)은 체계적인 재생에너지정책이 원자력발전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 2020년까지 약 1억 5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녹색당은 재생에너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회사들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공급을 2020년까지 15% 증가시키는 것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lanning, 2006. 3. 2)

14. 대기오염 갈수록 악화, 차량 배기가스가 주범 (시드니)

시드니市の 대기오염이 차량 배기가스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이후 지금까지 대기오염도가 보건당국의 기준치 이상을 기록한 날짜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 동기간에 산불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작년보다 75%가 더 악화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보건기준치를 초과한 연간 평균일수는 5~20일인데 지난 석 달 동안 이미 14일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드니 대기오염의 주범은 차량 배기가스로, 지난 20년간 차량이 60% 이상 늘어났다. 차량 한 대당 주행거리도 연 평균 인구증가율의 두 배인 2.3%로 늘어났다. 매연을 배출하는 정비불량 차량과 노후 차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보호청은 이미 10년 전에 시드니 차량주행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대기오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지만 이민자 및 차량 증가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이 위험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시드니 남서부가 가장 나뻐지만 시드니 동부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는데 시티크로그 터널 개통 이후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市는 대기오염 문제가 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고 현재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동아일보, 2006. 2. 28)

15. 온실가스 삭감을 목표로 「삼림환경세」 도입 (일본 후쿠시마縣)

일본 후쿠시마縣은 縣內 산림보전을 위해 4월부터 「삼림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1인당 1,000엔(약 8,000원)을 징수해 약 10억엔(약 80억원)의 세수입을 산림정비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목재가격 하락으로 산림소유자의 상당수는 별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새롭게 식재하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숲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또한 삼림환경세를 공유림 외에 사유림에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유림이라 해도 토사붕괴 방지 등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의 6% 삭감(2008~2012)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3년도 기준 배출량은 오히려 8.3% 증가했다. 정부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코치縣이 처음으로 「삼림환경세」를 도입했으며, 현재 8개 縣에서 「삼림환경세」를 실시하고 있다. 후쿠시마縣을 포함한 5개 縣은 2006년 4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縣 관계자는 숲의 공익적인 기능을 생각할 때 숲 보전은 현민의 공통과제이며, 삼림환경세를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세를 통해서 숲 만들기 에 참가하는 구조이며 삼림문제에 관심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www.yomiuri.co.jp/e-japan/fukushima/kikaku/055/)

16. '쓰레기 배출구분 색깔 캘린더' 제작 배포 (동경都 타이토區)

동경都 타이토區에서는 區內 각 가정에 요일별 배출 쓰레기 종류를 정확하게 주지시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도판 타이토區 쓰레기 배출 캘린더'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캘린더는 A3판 컬러 양면 인쇄로 12만 3000부를 제작했다. 앞면에는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캘린더가 있는데,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 수거일은 분홍색, 소각이 불가능한 쓰레기 수거일은 청색,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은 녹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색깔에 대한 설명은 외국인도 알아보기 쉽게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수거요일 패턴은 區 내 13개 지역마다 모두 다르므로 13개 종류가 준비되어 있다. 뒷면에는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별방법, 쓰레기 배출방법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신규 전입자용으로 요일별 색깔 구분 없는 캘린더도 준비되어 있다.



(www.city.taito.tokyo.jp/index/000013/025836.html)

도시교통

17. 주차공간 부족 해결 위해 자동차 클럽(Car Club) 운영 제안 (런던)

런던주택협회(London Housing Federation)는 2016년이 되면 런던市 인구가 현재보다 80만명 증가하고 자동차도 28만대 더 늘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가가 높은 런던에서 고층주택 개발이 계속될 경우 주차공간 부족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런던주택협회는 이러한 자동차 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주택개발회사들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런던주택협회는 시민들이 자가용을 소유하기보다는 자동차 클럽(Car Club)을 통해 출퇴근시간 차량 대여나 자동차 함께 타기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Planning, 2006. 2. 24)

18. 구청의 주택건설 촉진 위해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장려금 지급 검토 (영국)

영국정부는 증가하는 주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구청과 자치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할 경우 정부가 주택과 관련된 도시계획장려금(Planning Delivery Grant)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주택정책의 상관성을 간과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주택공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Planning, 2006. 2. 28)

19. 슈퍼도심재개발공사 설립 추진 (영국 헐市)

영국 헐(Hull)市는 분산되어 있는 도시재개발 관련 기관들을 통합해 도시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재 난립한 도시재개발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y), 미래학교건설협회(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주택시장갱신개척협회(Housing Market Renewal Pathfinder) 등 여러 기관이 시티 플러스(City Plus)라는 기관으로 통합된다. 동시에 3억 5000만~5억 파운드(약 5900억~8500억원)의 재정을 시티 플러스에서 도시재개발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市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이 계획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중이며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Planning, 2006. 2. 23)

한줄 뉴스

<영국>

- 웨일즈의회 의사당 환경친화적 최신기술을 활용한 첨단건물로 신축
-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디자인 교육 지침서 작성
- 도시·농촌·도농중간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경관관리 국제협약에 서명
- 런던市, EDF Energy사와 지속가능한 도시에너지원 발굴·공급 공동모색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동경>

- 도립(都立) 고등학교 체육동아리 활동 중점추진학교 지정
- 低VOC(휘발성유기화합물) 제품 보급을 위해 상징적인 구조물에 低VOC 도장(塗裝) 실시
- 슈퍼 에코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폐기물 리사이클시설 준공

20. 안전 월드컵을 위한 엄격한 경기장 관리규칙 시행 (독일)

독일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안전 월드컵을 위해 경기장 관리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무기, 불꽃놀이 기구, 가스주입 팽파레 등은 물론이고 1m 이상의 판넬이나 응원도구, 부피가 큰 지갑, 여행용 가방 등도 경기장 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 물품들을 출입구에서 맡기고 관람 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종주의, 극우주의, 나치주의를 홍보하는 정치적 선전물도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관람을 통제하기 위해 경기장 입장시 의심이 가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도로상의 음주측정과 같은 방식으로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붙게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Berliner Zeitung, 2006. 3. 5)

(www.berlinonline.de/berliner-zeitung/berlin/531358.html)

21. 대규모 사고 발생시 방재기관간 연대 방안을 기술한 매뉴얼 제작 (동경)

동경都는 2005년 4월 효고縣 아마가사키市에서 발생한‘JR후쿠치야마선 열차사고’를 계기로 都内에서 같은 규모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방재기관의 대응방법 등을 규정한 ‘대규모 사고시 상호연대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대규모 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임하는 방재기관(경찰서, 소방서, 자위대, 의사회, 적십자, 區·市·町·村 등)이 유기적으로 연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간 연대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3/20g31800.htm)

22. 건축현장 안전정보 공시제도 시행 (북경)

북경市 건설위원회는 건축현장의 위험요소를 공시하는 ‘건축현장 안전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 북경市 건축현장 면적은 1억 4000만㎡로 건축현장이 도시안전에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북경市 건설위원회는 2006년부터 인화성 건축자재 적재장소, 대형 건축현장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위험원의 수량과 위치상황을 상시적으로 공표하며 건축현장 안전에 대한 조치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요 명절, 중요 회의, 계절적 요인, 기상 악화 등 특수상황이 예상될 때에는 건축현장에 미리 위험가능성을 경고하는 경보제도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北京日報, 2006. 3. 2)